



국가 공공기관 임원 인선 절차 속도

JDC 차기 이사장 후보자 추천 절차 남겨
상임이사·비상임 등 한꺼번에 모집 공고
제대병원 상임감사 선발 1년여만에 재개

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임원진에 대한 인선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역에 소재한 국가 공공기관 중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주요 임원 보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과 상임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상임이사,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 등이다.

이중 JDC 차기 이사장 선발 절차는 정부 추천 단계에 와 있다. 지난달 JDC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10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8명이 지난 13일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JDC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들 가운데 두 명

이상을 차기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통상 임추위는 3~5배수를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해 왔다.

차기 이사장 후보자 추천 명단은 국토교통부로 제출되며, 국토부가 이들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넘기면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인사 검증이 시작된다. 정원이 500명 이상인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임원은 주무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지만 정원이 500명 미만인 JDC 이사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JDC 이사장 후보자로는 학계 인사와 도내 정치권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JDC 임원에 대한 인선 절차도 줄줄이 시작됐다. JDC는 지난 15일 상임이사(산업육성본부장)와 비상임이사(2명), 상임감사(1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꺼번에 냈다.

이들은 JDC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한다. 다만 공식인 JDC 2인자격인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에 대한 공모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DC는 전임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 만료하자 후임을 찾기 위한 공모와 후보자 추천을 마쳤지만 공운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점에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장기간 보류됐던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인선도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병원 측에 조미영 상임감사에 대한 후임 인선을 진행

하라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상임감사는 2024년 7월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가 선발되지 않은 탓에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그해 8월 공모를 거쳐 국민의힘 인사 2명을 상임감사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2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지난해 1월 재공모에 나서려다 '당분간 보류하라'는 교육부 지시로 장기간 후임을 선발하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상임감사 공모를 내고 다음 달 내에 후보자 추천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복지본부장)를 공모 중이다. 이중 복지본부장은 통상 제주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부동산 취득세 5년 연속 감소
5년새 반토막… 전체 지방세는 반등해 1조8700억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최근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5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1766억원으로 2024년 대비 488억원 감소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취득세는 2021년 3539억원, 2022년 3362억원, 2023년 2611억원, 2024년 2254억원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제주 부동산 경기는 2020년 이후 침체 국면에 들어갔으며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건설업체는 60곳이 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또한 최고점인 2023년 대비 100곳 이상 줄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세 수입은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결여들인 지방세는 1조 8762억원으로 2024년 대비 135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조 971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2024년 1조8600억원대로 감소했으나, 2025년 135억원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다.

주요 세목별 세입액을 보면 차량 취득세가 2024억원으로 114억원 늘어났고, 지방소비세가 6341억원으로 398억원 증가, 재산세는 1988억원으로 51억원 증가했다.

차량 취득세는 2024억원을 징수해 전년(1910억원) 대비 114억원 증가했다.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은 3161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투자진흥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세계 지원과 함께 '빛나는 제주 상생기업 육성펀드'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강화한 결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27.9%) 증가했다.

제주도는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수확충 노력을 토대로 올해는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달콤쌉싸름한 취나물 드세요” 20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1742억원 투자

제주해양치유센터·해녀의 전당 건립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해양수산 분야에 총 1742억원을 투입해 해양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해양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수산업 465억원, 해양산업 239억원, 해녀문화유산 57억원, 해운항만 981억원을 편성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어업인 수당 등 26개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한다. 수산물 가공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위판장 현대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마케팅·물류 지원 등 26개 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해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인공어초와 해중립 조성 등 7개 사업에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수력발전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이상수문 대응 해수공급 확충과 역화산소 지원 등 25개 사업에 8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어선 안전장비 설치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피해어선 경영비,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등 25개 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에 70억을 투입해 해양자원 기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준도항 활성화를 위해 위탁수화물 처리시설 설치 및 국민체험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다.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한다.

해녀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와 해녀스테이, 해외 프로모션 등 16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투자해 해녀문화 가치 확산에 나선다. 또한 올해는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뤄질 예정으로, 향후 케이(K)-해녀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해녀문화 전승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제주~칭다오 항로 조기 안정화에 53억원을 투자하고, 항만 기반시설 확충에 860억원을 편성했다. 오소범기자

제주 농업문화, 공공 아카이브로 기록된다

교육·연구·정책 등 활용

제주 농업과 농업문화, 해녀와 농업이 결합된 제주 고유의 생활 문화가 공공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로 구축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동오농촌재단,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연구소와 함께 20일 제주 농업·농업문화 공익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 아카이브 기준에 부합하는 사진 촬영, 데이터 관리, 기록물 구축, 시각적 기록 콘텐츠 제작, 연구 및 학술 자료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농업문화 관련 연구 및 학술 자료를 공유하고, 기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협력과 지역 특화 농업문화 자문

등을 담당한다.

재단은 사업 기획과 총괄 운영을 맡아 협력기관 간 역할 조정과 성과 관리, 기록 결과물의 공익적 활용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상명대는 제주 농업과 해녀 문화에 대한 연구 기반 기록물을 촬영하고 전통 농업문화의 시각적 해석과 스토리 구성, 공공 기록 기준에 준하는 촬영 및 데이터 관리,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원본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렇게 구축된 기록물은 교육·연구·정책·홍보 등 공공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제주 농업의 전통과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이 제주 농업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